

감사가 넘치는 가정

추석은 한 해 가운데 가장 마음 넉넉한 풍요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추석은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인생에 주는 깊은 깨우침이 있습니다.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추석은 삶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추석은 생각도 풍성한 계절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만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추석을 '한가위'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크게 감사하며 갚는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추석은 감사의 능력을 생각하게 합니다.

'달고나라는 과자를 아십니까? 국자에 설탕을 담아 불에 올려놓고 녹인 후에 여러 모양의 틀로 찍어서 주던 간식입니다. 그런데 달고나를 만들 때, 녹은 설탕을 부풀게 도와주는 첨가물이 있습니다. 바로 '소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다, 믿음의 소다는 감사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신앙의 작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진리 안에 뿌리박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7절). 그런데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반드시 더 첨가되어야 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함의 자세는 믿음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억이며,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성도 앞을 가로막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셋째. 추석은 나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게 합니다.

추석에는 곡식의 익어짐에서 오는 넉넉함과 나누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추석은 나의 인생에도 낙엽이 지고, 푸른 생기가 누런 추수의 색으로 바뀌게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추석은 추수의 풍성함 속에서도 추수를 끝낸 빈 벌판을 바라보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도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겠구나' 이것이 추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진지한 음성입니다. 추석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기이며, 추수를 끝낸 나의 뒤편길을 생각하게 하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복된 추석입니다. 이 기쁜 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세상의소금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온 가족들과 얼굴을 맞대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추석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소금 염산교회 위임목사 장석현



2025 온 가족과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 추 석 가 정 예 배 ◎

1. 개 식 사 인 도 자

추석 명절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 사도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 찬 송 28장(28) 다 같 이

-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2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 3절. 주의 귀한 은혜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4. 기 도 가 족 대 표

※ 가족대표가 가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가족들이 추석을 통하여
더욱 화목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가족이 되게 해 주시라는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5. 성경말씀 골로새서 2장 6~7절 다 같 이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 설 교 감사가 넘치는 가정 말 은 이

※ 인도자가 뒷면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7. 가족기도문 가족이 함께

※ 설교문 낭독 후 예배에 참여한 가족 모두 함께 축복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잊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말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온 가족이 평안함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2025년 남은 날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 찬 송 301장(460) 다 같 이

-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절.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9.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